

제목: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소프트웨어학부 202202201 나권업

시험까지 3주, 수업마다 쏟아지는 과제,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난 속으로 다짐한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은 롤드컵(리그오브레전드 월드컵의 줄임말)에서 우승한 데프트 선수가 과거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기자가 재치있게 한중요약한 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벽을 마주하곤 한다. 나 또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벽을 마주했다.

고2때 난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어렸을 때 노는 법을 몰랐었기 때문일까.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좋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에는 즐거웠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았고 세상이 내 편이구나 생각이 들 만큼 모든 일이 잘 풀렸다. 하지만 결국 벽은 내 길을 막아섰다. 3학년이 되고 친구들이 인 서울의 어느 대학을 쓸까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교를 바라봐야 했다. 당연히 인 서울은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난 이제는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성적을 인정해야만 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 번 더 외면할 수도 있었다. 운이 좋다면 재수에 성공하고 평범한 대학에 들어가 평범한 직장에 다니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연 행복해진다고 내가 외면하고 부정했던 나의 치부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show and prove"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말 그대로 보여줘라, 그리고 증명하라는 뜻이다. 나는 나의 12년이 부정당하는 것이 싫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힘겹게 쌓아올린 나의 노력을 대학 입학 사정관의 펜 위에서 그려지는 불합격이라는 단 3글자로 난도질당하고 싶지 않았다. 정답은 간단하다. 증명하면 된다. 한 인간이 살아온 인생의 절반이 넘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써내려오 이야기의 끝을 행복한 결말로 장식하고 싶다면 그저 결과로 증명하면 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결국,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원하는 대학에 갔기 때문이 아니라며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기만과 조롱이라고. 맞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실패하지 않고 결국에는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롤드컵 대표 선발전에서 마지막으로 데프트 선수가 있는 DRX가 선정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다. 다른 팀이 갔어야 했는데 그들이 기회를 뺏었다며 축하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축복 대신 비난을 일삼았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나라가 FIFA 월드컵에서 우승할 확률보다 낮다고 전문가들이 비아냥거렸던 그들이 기적을 이루어냈다. 시즌 끝피에서 시작했던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의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패배의 아이콘이자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였고 언더독의 아이콘이 되었다.

사람들은 언더독에 열광한다. 그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가짐에 반했기 때문 아닐까? 그들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본인들조차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싸움에서조차 온 힘을 다한다. 몇 번이고 깨지고 당신들의 노력과 역사가 부정당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증명해낸다. 자신들의 가치를. 나 또한 언더독이다. 그 누구도 내 성적으로 들어본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부모님, 심지어나마저도 그랬지만 보아라. 결국, 증명해냈다. 다시 한번 명심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